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화순군, 스마트 가로등 군민 안전지킴이 '톡톡'

가로등·보안등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 인명 구조작전 등 활용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보수는 물론 인명 구조에도 활용돼 군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월31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GPS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를 모은데 이어 최근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비게이션 지도를 접목한 가로등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해 신속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가로등에 부착된 번호로 앱을 통해 고장 신고를 하면 관리자의 모바일에서 자동으로 위치를 찾아주고 길 안내를 해주는 업무 처리 방식이다.

'어느 마을 누구 집 앞' 식으로 물어보며 찾아다녔던 방식에 비하면 전국 최초의 진보된 모바일 방식인 셈이다.

군은 이와 관련, 가로등 포탈 번호만 입력하면 신고에서부터 보수까지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GPS 연동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 중에 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에서 인명 구조작전 등의 위치정보 파악에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면서 기능과 편리성이 입증된 바 있다.

화순군 가로등·보안등 스마트 조명지킴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번 스마트 가로등시스템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 사자 지대 없는 화순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공익형·시장형 50개 분야 총 2,239명 일자리 제공

나주시는 지역 노인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7곳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익형'(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자리 참여자와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60세 이상 사업특성직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57억 원을 투

입, 전년대비 140명이 증가한 어르신 2,239명에게 50개 분야 공익형·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나주시 주관의 직접수행사업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 등 7개 수행기관사업으로 추진된다.

공익형 사업은 매일 30시간 활동하고 월 27만원의 보수를 시장형 사업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간을 정해 정부 지침의 보조



금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합한 보수를 각각 받게 된다. 특히,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6070청춘택배', '공동작업장', '목사고을도시락배달', '운전면허시험장교통도우미' 등 15개 분야 240여명이 참여한다.

광양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영양 취약한 임산부·영유아에 6개월 동안 맞춤형 영양지원



광양시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영양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특성별로 패키지 6종의 보충식품을 제공해 영양문제 해소는 물론 스스로 식

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신체계측, 영양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쌀, 달걀, 감자, 당근 등 영양밀도가 높은 보충식품을 6개월 동안 월 2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이식과 간식 만들기 조리실습 등의 영양교육도 함께 진행해 대상자들의 식생활 관리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비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시기의 영양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올바른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자' 수강생 모집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 40명 모집



순천시는 4차 산업시대에 유망직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자 양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사란 훈련을 통해 매개활동견으로 거듭난 반려동물과 함께 치유를 필요로 하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동물과 함께 하는 놀이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전하는 봉사자이다.

매개치유견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사회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견으로 사체탐지견, 인명구조견, 맹인보조견과 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주기위해 훈련된 견이다.

교육과정은 반려동물이 매개치유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동물 교육과 매개치유견을 다룰 수 있는 관리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 수료 후 평가를 거쳐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자'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희망자를 선발하여, 지역의 학교,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 동물매개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자' 양성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 반려산업팀 (749-4468, 44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수도권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오산시를 비롯하여 강서구, 구로구, 용산구 등(8개 장소)에서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행사를 펼친다.

순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촉활동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 신규고객 유치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지역에서 25개 업체가 참가해 202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순천만 함초소금을 비롯한 장류, 꽃감, 전통한과 등 순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여 설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 중심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찾는 대도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10억여 원의 농가수익을 올렸고, 지난해부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중인 가락골 서울 가락동 소재에 입점하여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거래 판로개척과 판매 노후유를 축적하여 순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